

인공지능과 인재육성

글_이경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사진기가 프랑스에서 발명되어 보급되는 동안, 독일 라이프찌히 신문은 1912년에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찰나적인 영상을 고정시키려는 시도는 독일에서 철저한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불가능한 일일뿐더러 그것을 바라는 마음 자체가 신성모독이다. 인간은 신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으며 신의 상은 어떠한 인간의 기계를 통해서도 고정시킬 수 없다. 기껏해야 신적인 예술가가 신성의 영감에 감동되어 신과 같은 인간의 특성들을 지고로 신성한 순간에 그의 천재의 고귀한 명령을 받아, 어떤 기계의 도움도 받지 않으면서, 재현할 업무를 낼 수 있다.”

발터 벤야민의 「사진의 작은 역사」에서 소개됐던 이 내용은,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하고 있는데도 이를 애써 폄하하고 부정하는 일부 지식인의 아둔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벤야민의 같은 글에서 막스 다우텐다이의 글을 인용한 것을 소개하면, 새로운 미디어에 대해 사람들이 과민 반응하고 두려워하는 모습도 역시 확인 가능하다.

“사람들은 다게르가 만든 최초의 사진들을 처음에는 오랫동안 바라볼 업무를 내지 못했다. 그들은 사람들의 모습이 뚜렷하게 찍힌 사진을 들여다보기를 꺼렸으며, 사진에 찍힌 사람들의 조그만 얼굴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인공지능으로 인류가 멸망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헤브루 대학의 유발 하라리, 옥스포드 대의 닉 보스트롬 등은 초기 사진을 보고 두려움을 가졌던 바보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인공지능으로 직업이 많이 없어져서 디스토피아가 된다는 류의 주장들이 대부분 이 범주에 속한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확장, 인간의 뇌의 확장일 뿐이다. 결국 마셜 맥루언에 따르면 정의에 충실한 미디어일 뿐이다.

사진기가 나와서 화가가 없어졌을까? 그렇지 않다. 사진기가 나온 초기에 돈을 많이 번 이들은 사진 기술에 열광한 화가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화실을 사진관으로 바꾸어, 그림을 그리던 시간을 절약하였고, 절약한 시간을 활용하여 더 많은 고객에게 더 많은 작품을 반복 판매하여 큰돈을 벌었다.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했던, 구도 잡기, 인물에게 표정 짓게 하기 등

의 기술은 사진기를 조작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사진의 발명은 화가를 멸망시키지 않았고, 일부 화가들은 사진사로 변신시키고, 일부 화가들은 모더니즘 예술 화가로 변신시켰다. 사진의 등장은 회화를 소멸시키지 않았고, 무한 복제되는 사진은 더 많은 여행과 더 많은 유명한 사람을 만들어냈다. 새로운 사진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은 그림을 그리던 기존 기술과 기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다. 건축학을 전공한 사람이 인공지능 기법을 새로 습득하는 것이 쉬울까? 아니면 인공지능학을 전공한 사람이 건축 기법을 새로 습득하는 것이 쉬울까? 작곡 분야는 어떠할까? 의학은 어떨까?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이 쉬울까? 아니면, 인공지능학을 전공한 사람이 의학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쉬울까? 상당히 많은 경우에, 도메인 지식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인공지능 기법을 습득하는 것이 아직은 훨씬 쉽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사회와 정부, 기업의 모든 부문에서 교육돼야 한다. 인공지능은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인력에게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 각 분야의 도메인 지식을 가진 인재들이 인공지능 기법을 익혀서 자신의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더 많은 여유시간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잘하는 사회와 조직이 더 행복해지고, 더 좋은 성과를 내게 될 것이다.

대학의 거의 모든 단과대학과 학과에서 인공지능 교육이 이루어져서 각 분야의 전공자들이 인공지능을 쉽고 편리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기업도 전략기획, 생산운영, 마케팅, 품질관리, 인사, 총무 회계, 연구개발 등 기업 경영 전반의 실무자들에게 인공지능 학습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마치, 우리가 이제는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하루에도 수십장의 사진을 찍고 공유하며 행복해하고 있는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손에 들고 생활과 업무 곳곳과 순간순간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며 행복하게 살 것이다. HRD



이경전 교수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회장과 국제전자상거래연구센터 소장으로 활동 중이며, Benple 대표 및 Allwinware 로도 일임하고 있다. 1995, 1997년에는 세계인공지능학회 혁신적 인공지능 응용상을 최초로 2회 수상했다.